

Equity Strategy

글로벌전략 허재환

6176/jaehwan.huh@eugenefn.com

코스닥과 제약바이오의 뜨거운 여름

“국내 증시가 반등 중임. 코스닥과 건강관리 업종도 동참함. 5~6월만 해도 반도체주로 쏠리는 과정에서 코스닥은 철저히 소외된 것과는 대비됨. 코스피가 6/22일 9,114pt 이후 하락 (7/30일 5,593pt)의 38%를 회복함. 코스닥은 올해 하락 폭의 37%를 만회함. 코스닥 시장이 더 이상 무기력하지 않음. 그 중심에는 제약바이오 업종이 있음.

“미국 증시에서도 헬스케어 섹터 주가가 회복 중임. 미국 헬스케어 업종이 반등하는 이유는 1) 헬스케어 시가총액 비중이 지난 3년 반 동안 17%에서 8%로 감소할 정도로 오래 소외되었다는 점과 2) 올해 (1.2%)와는 달리 내년(23%)에는 실적 기대가 개선되기 때문임.

“미국 헬스케어 주가 반등은 순환매보다 내년 실적을 반영한 것임. 헬스케어 업종은 경기 방어적이나, 최근 미국 산업재와 금융주 강세에서 나타났듯, 현재 미국 증시는 실적 기대를 반영 중임.

“국내 헬스케어 산업도 오랫동안 소외되어 왔음. 올해 코스피에서 반도체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는 과정(+17%p)에서 건강관리(-2.4%p), 조선(-2.1%p), 상사자본재 비중(-2.6%p)이 가장 많이 축소됨. 코스닥 시장에서도 건강관리 업종 비중이 가장 크게 감소함(-8.8%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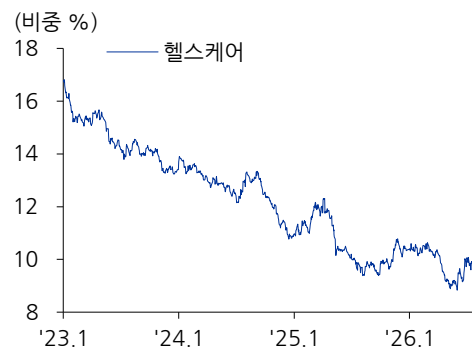
“그러나 국내 증시는 내년 실적보다 수급 요인이 더 작용한 것으로 보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가 급격히 감소함. 지난 7/14일 18.3조원이었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거래대금은 규제 시행(7/31일) 이후 1조원 미만으로 감소함. 코스닥을 비롯한 소외된 업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일종의 자금의 이동, 즉 반작용임.

“코스닥에 대한 관심은 유효함. 코스피 영업이익 증가율은 올해 (+226%)를 정점으로 내년 34%로 둔화될 예상임. 반면 코스닥 영업이익 증가율은 올해 82%에서 내년 38%로 둔화되나, 코스피보다 높음. 반도체 소부장과 2차전지 산업이 코스닥 실적 기대를 뒷받침함.

“9~10월 예정된 코스닥 승강제에 앞서, 주가 천원 미만 동전주 관리 종목 지정과 상장 폐지도 시작됨. 8/12일 KRX는 동전주를 관리 종목으로 지정함. 10월경 첫 상장 폐지가 나타날 수 있음. 1,700개가 넘게 난립되어 있는 코스닥 시장에서 정화작업이 본격화되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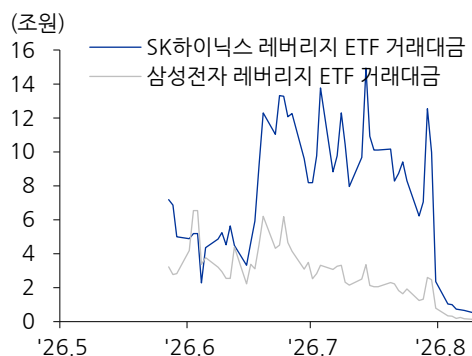
“8월이면 아직 내년 기대를 반영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음. 코스닥과 제약바이오 업종이 반도체를 대체하기는 어려움.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올해보다 내년 실적 기대가 높은 IT가전, 화학, 유틸리티, 화장품에 대한 관심은 유효함.

미국증시에서 가장 소외된 헬스케어 업종의 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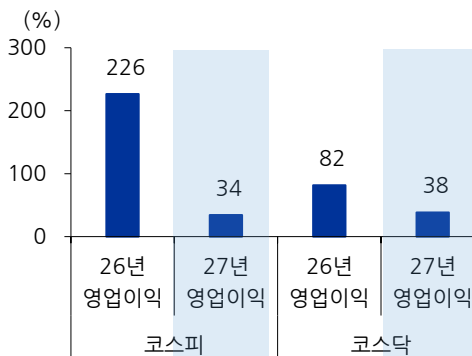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유진투자증권

국내 증시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 실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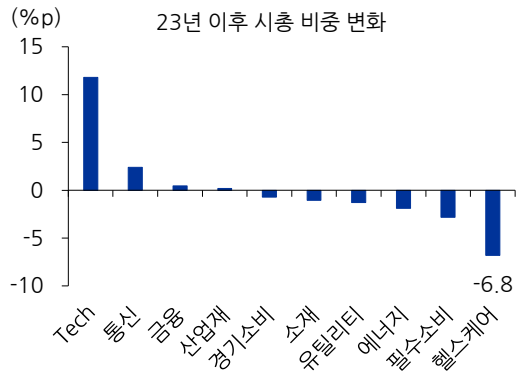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유진투자증권

2027년 코스닥 실적 기대, 주로 2차전지/IT소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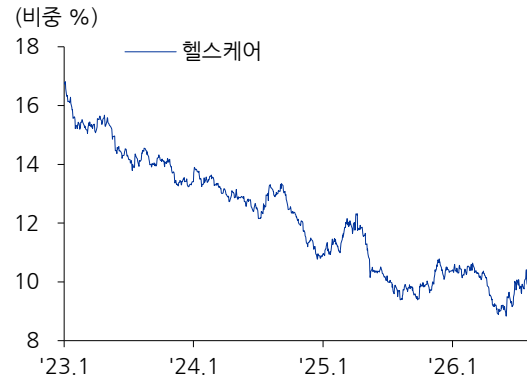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유진투자증권

23년 이후 미국 헬스케어 섹터가 가장 소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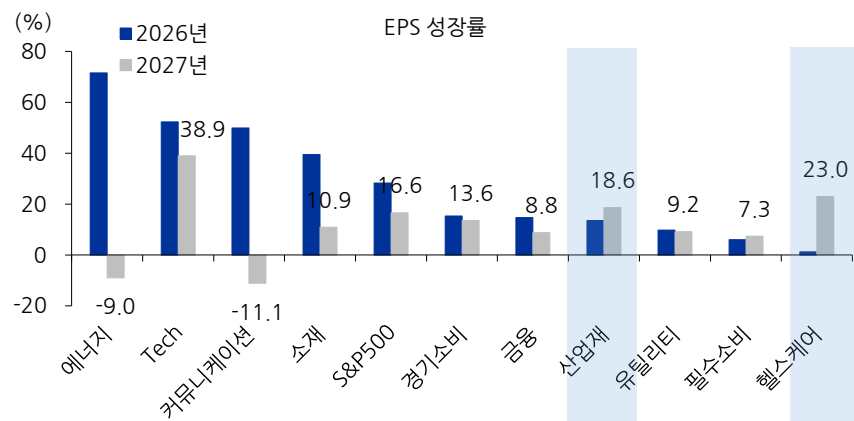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유진투자증권

헬스케어 섹터 비중은 17%에서 8%대로 감소



자료: Refinitiv, 유진투자증권

올해 헬스케어 섹터 이익 가장 부진, 그러나 내년은 달라질 전망



자료: Refinitiv, 유진투자증권

미국 산업재 고점 돌파 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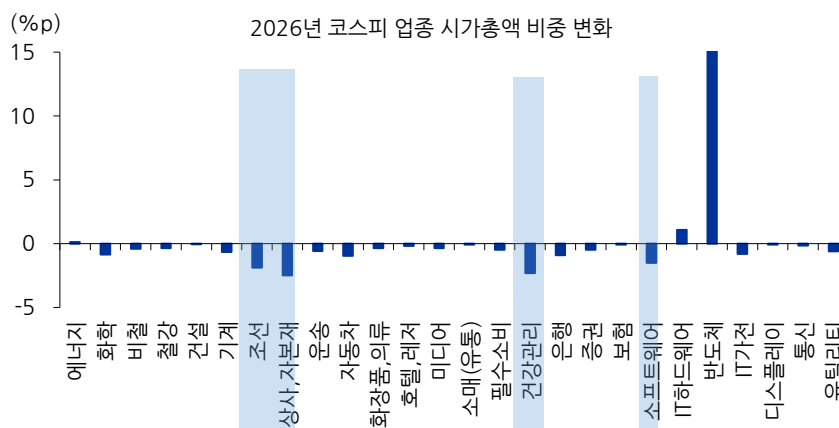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유진투자증권

미국 금융주 고점 돌파 시도



자료: Refinitiv, 유진투자증권

올해 국내 증시에서 조선, 상사, 건강관리, 소프트웨어 섹터가 가장 소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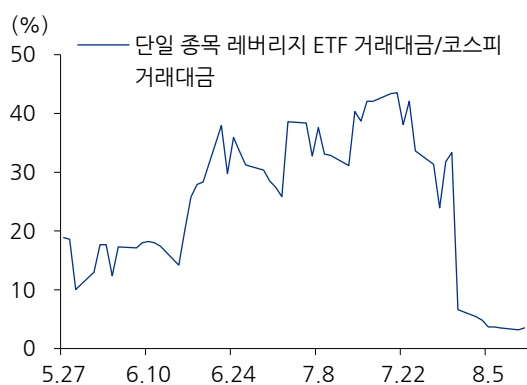
자료: Quantivise, 유진투자증권

올해 코스닥 시장에서는 건강관리 업종이 가장 소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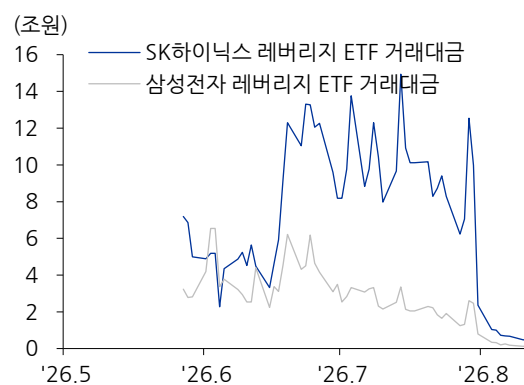
자료: Quantivise, 유진투자증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 비중 3%대로 급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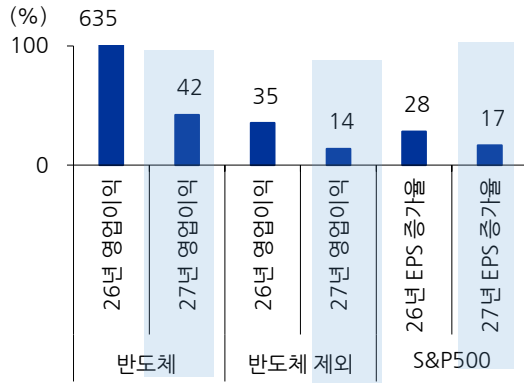
자료: Quantivise, 유진투자증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 급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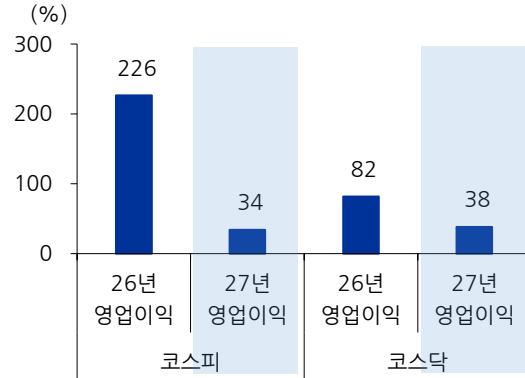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유진투자증권

국내 반도체 이익 증가율 둔화



자료: Quantivise, 유진투자증권

2027년 코스닥 실적 기대는 유효



자료: Quantivise, 유진투자증권

2027년 실적 측면에서는 IT가전, 화학, 유틸리티, 화장품

	26년 영업이익 증가율 (%)	27년 영업이익 증가율 (%)
에너지	486.6	-12.3
화학	2936.9	75.3
비철	37.9	-11.3
철강	57.3	33.6
건설	61.9	22.4
기계	41.6	26.6
조선	73.5	10.0
상사, 자본재	-4.2	18.8
운송	7.4	32.8
자동차	0.9	13.1
화장품, 의류, 완구	-12.6	17.5
호텔, 레저서비스	25.9	15.1
미디어, 교육	20.2	34.9
소매(유통)	37.9	14.0
필수소비재	-9.9	1.3
건강관리	19.0	19.3
은행	11.5	5.6
증권	30.3	-16.1
보험	2.3	23.7
소프트웨어	10.1	16.1
IT 하드웨어	128.5	59.6
반도체	667.3	42.2
IT 가전	흑전	78.5
디스플레이	69.8	42.6
통신서비스	16.5	7.7
유틸리티	-21.2	29.6
코스피	219.1	34.1

자료: Quantivise, 유진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